

# 경남 남해군 어촌지역 생활어휘 연구\*

- 행위자 및 환경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

홍기옥\*\*

## || 차례 ||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남해군의 어촌지역 생활어휘
  - 1. 남해군 어촌지역 생활어휘 조사항목
  - 2. 행위자 관련 어휘
  - 3. 환경 관련 어휘
- IV.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경남 남해군 어촌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사용하고 어촌지역 생활어휘 중 ‘행위자’, ‘환경’에 관한 어휘를 정리하였다. ‘환경’에 관한 어휘는 시간(물때, 미세기, 하루), 날씨(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공간(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 지명에 관한 어휘로 하위 분류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는 제보자를 만나 질문지와 그림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다양한 어휘 확보를 위해 어촌지역에서 나고 자랐으며 생업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보자 5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이 연구는 2007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국립국어원 생활어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에 수행된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 조사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국립국어원 생활어 조사에서 경상남도 지역을 담당하는 연구원.

조사 결과 어업 ‘행위자’에 관한 어휘에서는 이 지역의 대표 어로 방식인 ‘죽방렴’에 관한 어휘가 나타났으며, ‘환경’에 관한 어휘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어휘를 채록할 수 있었다. 조사를 바탕으로 경남 남해안 어촌지역 생활어휘를 행위자, 시간, 날씨, 공간, 지명 등의 범주로 어휘 체계를 목록화 하였다.

주제어 : 생활 어휘, 어촌 지역 생활어, 어촌 지역 방언, 남해안 어촌 지역, 행위자, 환경

## I. 서론

어촌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촌 생활어휘<sup>1)</sup>에는 어촌의 문화가 담겨 있다. 여기에는 어촌지역의 환경, 전통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연계된 어휘, 표현이 들어 있고 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문법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어촌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을 통해 어촌지역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촌사회의 급격한 도시화, 이로 인한 경제 형태의 변화는 이와 관련된 어촌 생활어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어촌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가 소멸하거나 변화하는 것이다. 언어의 역사성

---

1) 생활어휘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어휘이다. 생활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서, 인식,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의 대부분은 언어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을 담고 있는 언어가 생활어휘이며 나아가 어촌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어휘를 ‘어촌 생활어휘(어촌 생활어)’라 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생활어휘이지만 어촌이라는 특정 생활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촌의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지역의 생활에서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는 범주에 초점을 두어 조사 항목을 정하였다(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질문지 참조). 또한 지역의 말에 관심을 두는 것이어서 지역 방언이 생활어휘에 묻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어촌지역 생활어휘에는 방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어휘 중 지명에 관한 어휘를 포함 시킨 것은 지명을 나타내는 어휘에는 지형에 관한 어휘를 포함한, 즉 상위 개념을 포함한 어휘가 대부분이어서 지형에 관한 어휘 목록 체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의 측면에서 언어의 소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생각하면 사라져가고 있는 생활 어휘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남 남해안 어촌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촌 생활어휘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 한다. 이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어휘를 일정 범주별로 분류하여 이와 관련된 어휘목록을 체계화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어촌지역 생활어휘에 관한 조사에서는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도구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 등으로 상위 범주를 정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중 본고에서는 지면상의 이유로 지역 생활의 행위 주체인 ‘행위자’와 어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어휘를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 II. 연구 방법

2010년 4월 26일부터 시작된 어촌지역 생활어휘 조사는 크게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문헌 조사는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어촌 생활 관련 어휘를 조사하고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이후 현장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에 참조하였다<sup>2)</sup>. 현장 조사에서는 작성한 질문지는 물론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림 자료도 함께 이용하였다. 조사 지역과 제보자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는 6월 초까지 하였으며, 현장 조사는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녹음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2) 질문지는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도구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에 관해 총 301개 항목으로 구성.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족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민족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으로,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조사 방식이다. 이 방법을 통해 질문지의 내용을 제보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하위 분류의 어휘도 수집할 수 있었으며 제보자들의 생생한 삶이 묻어난 어휘도 수집할 수 있었다. 현장 조사 후 미비한 부분의 보충을 위해 보충 조사도 실시하였다.

경남 남해안 어촌지역 생활어휘 조사는 경남 남해안의 중부에 위치해 있는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지족리는 지족해협을 끼고 있는데 조류 속도는 진도 울돌목 다음으로 빠르며, 조수간만의 차이는 3m 정도이다. 멸치, 전어, 노래미, 학꽂치, 꽃게, 베도라치 등의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며 계절별로 드는 물고기도 다양하다. 주민들은 농사보다는 어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 남해안에서 원시 어업 방식인 죽방렴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남해안 어촌지역 생활어휘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생업으로 어업에 종사한 제보자를 구하였다. 한 제보자에게 수집할 수 있는 어휘가 한정적이라 여러 제보자를 정하였다. 50년 넘게 뱃일을 한 최맹춘 씨, 마을 이장인 전대현 씨를 주제보자로 하고, 마을의 대표적인 어로 방식인 죽방렴에 종사한 빈도석 씨, 임권택 씨, 임종수 씨를 보조 제보자로 정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 제보자

이름	성별	나이	기타
전대현	남	66	남해군 삼동면 지족 2리 이장
최맹춘	남	71	50년 넘게 뱃일
빈도석	남	76	50년 가까이 뱃일, 죽방렴 종사
임권택	남	74	3대째 죽방렴 종사
임종수	남	78	3대째 죽방렴 종사

남해안 어촌지역 생활어휘는 크게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도구와 어로방법, 민속, 음식’ 등으로 상위 범주를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행위자’와 ‘환경’에 관한 어휘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특히 환경 중 지형에 관한 조사에서는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의 지명도 조사하였는데 지명에는 지형과 연관된 형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Ⅲ. 남해군의 어촌지역 생활어휘

#### 1. 남해군 어촌지역 생활어휘 조사 항목

남해군 어촌지역 생활어휘 조사는 어촌지역 생활어휘 조사 연구를 위해 작성한 기초 어휘 조사 공통 질문지를 바탕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총 6개 항목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도구, 어로방법, 민속, 음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관련 하위항목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총 30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생활어휘의 수집이 조사의 1차 목적이므로 관련 확장어휘를 함께 수집하였다.

논문 작성 시에는 질문지에 수록된 어휘 순서로 정리하였다. 또한 조사 항목에 있으나 수집하지 못한 어휘이거나 남해군 삼동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어휘 중 다른 어촌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있더라

도 본 조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어촌지역 생활어휘를 체계화 하는 것, 다른 어촌지역과의 어휘 비교가 목적이므로 이들 어휘도 함께 정리하였다.

【표 2】 생활어휘 조사 항목

구 분	조사 항목	
행위자	어업 관련 행위자(어부, 해녀, 기타)	
환경	시간(물때, 미세기, 하루), 날씨(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공간(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 지명	
어획물	물고기	부분 명칭, 종류, 상태
	조개	부분 명칭, 종류, 상태
	게	부분 명칭, 종류
	해조류	종류, 상태
	기타	종류, 상태
어획도구	그물류	부분 명칭, 종류
	낚시류	부분 명칭, 종류
	배류	부분 명칭, 종류
	기타 도구류	종류
	지역 어획도구	종류
어로방법	조개류 관련 어로방법	
	해조류 관련 어로방법	
	그물류 관련 어로방법	
	낚시류 관련 어로방법	
	배 관련 어로방법	
	기타 관련 어로방법	
민속	제의, 금기, 속설, 은어, 노래	
음식	명칭, 조리법	

조사 결과물은 어휘자료, 음성자료, 사진자료, 동영상자료로 구분, 정리하였다. 어휘자료는 올림말, 해당 표준어, 발음, 품사, 뜻풀이, 용례, 관련

설명을 기록하였고, 음성자료는 제보자의 발화내용을 transcrib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사하고, 이를 진달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휘를 분절, 저장하였다. 보충자료로 어휘 관련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저장하였다.

경상남도 남해군의 어촌지역 생활어휘 조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조사 항목 301항목에 관련된 596개 어휘를 수집하였고, 이중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는 106개 어휘이다.

【표 3】 남해군 어촌지역 생활어휘 조사 결과물

조사대상	조사내역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구분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남해군 어촌지역 생활어휘		596	106	5/5	530	18	5

## 2. 행위자 관련 어휘

행위자에 관한 질문지의 조사 항목은 ‘어부, 해녀’로 2개 항목이었으나 조사 지역에 죽방렴이라는 독특한 어로방식에서의 행위자에 관한 어휘도 함께 조사하였다. 제시된 항목의 순서는 어촌지역 생활어 조사 질문지에 수록된 항목 순서이다.

### 2.1. 어부, 해녀 관련 어휘

어업 행위의 주체는 가장 일반적인 ‘어부’와 ‘해녀’를 조사 항목으로 하였다.

#### (1)

가) 요새는 저 뭐 옛날에는 {어민인데} 요새는 어업 때부터 어민으로서 이

래 지금은 인제 어업인으로서 인제 어업인 그러지요.

나) (투망꾼), 투망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고 이런 사람들.

다) 선망 같은 데는 {어로장}, 선장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어로장}, 통신사 선장, 기관장 이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자 그 배에 대해서 어업을 하는데 총체적인 책임자를 어로장이라 그러지요.

라) 인자 그 배에 어류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지휘를 하는 거, {선장은} 배를 몰고 이거 저 뒤고 바다어군탐지기 같은 걸 갖다지고서 어망을 또 나중에 또 짜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하고.

마) 우리는 요게 인자 {해녀가} 들어온 기 저쪽에서 제주도에서나 저쪽에 인자 그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왔지요.

어업 행위자에 관한 어휘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부, 어민, 해녀’라는 어휘가 나타나고 있었다. 어업 행위자에 관련된 확장 어휘로는 ‘투망꾼, 어로장, 선장’ 등이 있었으나 ‘해녀’에 대해서는 제보자들이 확장어휘를 제시하지 않았다.

## 2.2. 기타 행위자 관련 어휘

행위자 중 특이 어형은 남해군 삼동면에는 원시어업 방식인 함정어구 죽방렴<sup>3)</sup>이 많이 있는데 죽방렴 어업에 종사하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칭이 있었다.

(2)

가) 하모 {발쟁이} 죽방에 그 일하는 사람 아이고 발 주인을 발쟁이라 카지.

---

3) 죽방렴은 우리 나라 전통 어로방법 중 하나로 고기가 자주 드나드는 수심이 매우 얇은 길목에 대나무발을 걸어 고기를 잡는 방식을 말한다. 5미터가 넘는 참나무를 V자 형태의 날개를 박고 그 사이에는 대나무로 만든 발을 걸어 밀물을 따라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함정어구이다. 죽방렴 어구의 전문 용어는 정치식 압류어 수납어구류(定置式 壓流魚 受納漁具類)이다.



인자 아 주인을 내 발로 가지고 저발 저발 발쟁이 누구 그러제. 임자를 말하는 거제.

나) 일꾼은 아이제. 일꾼은 보통 뭐 (샷꾼이라크고).

다) (발 일꾼이라) 크지.

라) (선수도) 있고, 그 중에는 인자 아 발 일꾼 나오면 선수가 앞장서가 그 사람이 전부다 지휘를 다 하는 기라.

‘발쟁이’는 죽방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죽방렴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죽방렴 일을 하는 사람을 지역에서는 ‘발쟁이’라 하였다. 이는 지역에서는 죽방렴을 일반적으로 ‘발’이라 하고 있으므로 ‘발+쟁이’의 합성어형으로 볼 수 있다. ‘쟁이’는 기술 소유자인 ‘장이’가 뒤의 ‘ㅣ’ 모음의 영향으로 바뀐 형이다. 지역의 사람들은 예전에 발 일을 하는 사람을 천대해서 부르는 말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발쟁이는 죽방렴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했지만 그 중 죽방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발 주인을 부르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죽방렴 일을 하는 사람 중 죽방렴을 소유하지는 않고 죽방렴에서 샷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발일꾼’과 ‘샷꾼’이 있다. 남해에는 죽방렴이 많으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 단위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루에 두 번씩 발을 보러 나가는 일은 고된 일이므로 일꾼을 두는 경우로 있었다고 한다. 죽방렴 어장에서 일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을 발일꾼이라 한다. 이는 죽방렴을 일컫는 ‘발’과 ‘일꾼’의 합성 어휘이다. 죽방렴을 만들 때 발 만드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선수’라 한다. 예전에는 두 명의 일꾼이 함께 바다에 참나무 박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힘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다고 한다. 발 만들기 전문 기술자인 선수는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쌓아진 돌무더기 위에 장목을 박는 일은 전문적으로 하였다.

### 3. 환경 관련 어휘

환경에 관해서는 ‘시간’, ‘날씨’, ‘공간’으로 하위 항목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시간’은 다시 ‘물때’, ‘미세기’, ‘하루’로 나누어 23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날씨’는 ‘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로 나누어 38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공간’은 ‘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으로 나누어 37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공간에 대한 조사는 이 외에도 조사 지점에 관한 지명 조사도 함께 하였다.

【표 4】 환경 관련 조사 어휘 항목

구분	조사 항목
시간 (물때, 미세기, 하루)	한무날, 두무날, 서무날, 너무날, 다섯무날, 여섯무날, 일곱무날, 여덟무날, 아홉무날, 열무날, 열한무날, 열두무날, 조금, 아즈조금, 밀물, 썰물, 물밀다, 물써다, 새벽, 아침, 낮, 저녁, 밤.
날씨 (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동풍, 서풍, 남풍, 북풍, 동북풍, 북서풍, 동남풍, 서남풍, 회오리바람, 불다, 세다, 시원하다, 소나기, 이슬비, 장맛비, 여우비, 개다, 함박눈, 싸라기눈, 진눈깨비, 고드름, 얼다, 해돋이, 해넘이, 햇무리, 달무리, 은하수, 뜨다, 번개, 벼락, 천둥, 구름, 안개, 서리, 무지개, 맑다, 밝다, 춥다.
공간 (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 지명)	동향, 서향, 남향, 북향, 동서향, 동남향, 동북향, 서남향, 서북향, 먼바다, 연안, 바닷물, 민물, 파도, 거품, 너울, 파도치다, 넓다, 깊다, 높다, 짜다, 파랗다, 하얗다, 빠지다, 모래, 모래사장, 갯벌, 돌, 포구, 항구, 어귀, 개, 꽃, 만, 바위, 암반, 낭떠러지.

#### 3.1. 물때

‘물때’란 아침저녁으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의미하는 말로 어민들은 물때에 따라 작업하기 유리한 시기와 불리한 시기를 구분하고 어로활동에 임한다. 물때에 따라 어업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물때는 14개 항목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5)

가) 우리 갯상도 말로 물이 인자 한물 {두물이라는데} 그렇게 하는데 음력으로 팔일날이 조금물, 젤 물 죽었다 이말 말이 속도가 젤 약빠리다 이말이지. 그런 물 십오일, 십육일, 십칠일, 이 한식이라 그러고 오시월이라 그러거든. 그때 되면 물이 속도가 젤 빨라. 그러면 또 이십삼일날 되면은 {조금물써}. 그러면 이십사시간에 물이 두 번 나고 두 번 든다 말이야.

나) 스무셋날 조금날이 조금부터 한물, 두물, 서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물}에서 두고 또 한물 두물 보통 {스물 셋날} 고사를 옛날엔 마이했지.

다) 그러니깐 열다섯물 걱정 있지. {열다섯물은} 조금이지.

남해군 삼동면에서 사용하는 물때에 대한 어휘는 ‘한물, 두물, 서물’에서처럼 ‘양수사+물’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sup>4)</sup>. ‘한물’에서 시작해서 ‘열다섯물’까지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 ‘열다섯물’은 ‘조금’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조금’을 ‘조금물’이라고 해서 ‘조금+물’의 형태로 다른 물때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과 같이 ‘물’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음력 스무사흘과 초여드레를 나타내는 ‘조금’ 중 음력 스무사흘에 해당되는 날에 어업 종사자들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는 남해군 삼동면에서 죽방렴 어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죽방렴에 고기가 많이 들기를 기원하는 발고사를 이날에 많이 지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에서는 조금 중 스무사흘에 해당되는 날은 ‘스무사흘’이라는 어휘보다는 ‘스무셋날’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상의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서 사용하는 물때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면

4) 문헌에서는 남해군에서 사용하는 물때 관련 어휘는 이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물, 두물, 서물’의 ‘양수사+물’ 형태와 함께 ‘한무새, 두무새, 서무새’ 등의 ‘무새’형의 어휘도 보고된 바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어촌민속지』, 필기획, 2002, 182-183쪽 참조.

다음과 같다.

【표 5】 물때에 대한 어휘

항목	사용 어휘
물때	‘양수사+물’→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열다섯물
조금 (음력 7일, 23일)	조금, 조금물, 열다섯물
조금 중 스무사흘 날	음력 23일, 스무사흘날, 스무셋날

### 3.2. 미세기

‘미세기’란 밀물과 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미세기에 관해서는 ‘밀물, 썰물, 물밀다, 물써다’ 4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6)

가) {들물} 날물 딱 떨어져 지대로 떨어져 있어요.

나) 나가는 물을 썰물, 들어오는 물을 {밀물이라} 캐.

다) 그거는 인제 물이 똑같은 때 {물이 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루 한 시간 간격차가 있어요.

라) {물이 많이 빠질 때가} 대부분이 보면 고기가 많이 잡힐 때 거든요.

마) 음력으로 팔일날이 조금 물, 젤 {물 죽었다} 이말 말이 속도가 젤 안 빠리다 이 말이지. 그런 물 십오일, 십육일, 십칠일이 한식이라. 그리고 오시월이라 그러거든. 그때 되면 물이 속도가 젤 빨라.

경남 남해군 지족리에서 사용하는 미세기에 대한 어휘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밀물’은 ‘밀물, 들물’이라 하고, ‘썰물’은 ‘썰물, 날물’이라 한다. ‘들물’이라는 말은 ‘들다’의 어간에 ‘물’이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이고, ‘날물’

또한 ‘나다’의 어간에 ‘물’이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밀물 때 육지로 물이 들어오는 ‘물밀다’에 해당하는 어휘는 ‘물들다’가 있고, 물이 바다로 나가는 ‘물써다’에 해당하는 의미의 어휘에는 ‘물나다, 물빠지다, 물죽다’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이 중 ‘물들다’는 ‘물+들다’의 형태인데 ‘들다’가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바다를 밖이라 보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육지를 안으로 보고,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라 보는 것이다. ‘물써다’는 다양한 형태 어휘로 사용되고 있는데 ‘물+나다/ 빠지다/ 죽다’라는 연어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물죽다’라는 어휘는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 물 높이가 가장 낮은 상태를 ‘죽다’라는 어휘와 합성해 만든 말이다. 이상의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서 사용하는 미세기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미세기에 대한 어휘

항목		사용 어휘
미세기	밀물	밀물, 들물
	썰물	썰물, 날물
물밀다		물들다
물써다		물나다, 물빠지다, 물죽다

### 3.3. 바람

공기의 움직임을 ‘바람’이라 하는데 해안생태계에서는 효율적인 어로작업을 위하여 ‘물때’를 읽는 만큼이나 바람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민들은 바람의 특성과 그 영향을 잘 알고 있어야 그들 어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이 다르고 그 특성도 달라진다. 계절에 따라 어떤 바람은 어로에 유리하지만 어떤 바람은 나쁜 영향을 미

친다. 바람은 방향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조사에서는 기본 4가지 방향과 바다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어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14항목에 걸쳐 조사하였다.

## (7)

- 가) 동쪽은 {셋바람}.
- 나) 서풍은 {갈바람}.
- 다) 마파람은 {남풍을} 갔다가 말하고.
- 라) 남풍을 남풍이라 안 하고 {맞바람이라} 커제 여기는.
- 마) 북풍은 {땃바람이} 크면서로.
- 바) {뒀바람이니} 맞바람이니 인자 옛날 어른들은 그래 많이 쓰지요.

경남 남해군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대한 어휘는 방향에 따라 ‘동풍’은 ‘동풍, 셋바람’, ‘서풍’은 ‘서풍, 갈바람’, ‘남풍’은 ‘남풍, 맞바람, 마파람’, ‘북풍’은 ‘북풍, 땃바람, 뒀바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중 ‘갈바람’은 ‘가을바람’의 준말 형태이다. 2002년에 간행된 『경남 어촌민속지』에 보면,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에서 사용하는 바람 명칭이 나타나 있는데 나머지는 형태가 같지만 북풍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sup>5)</sup>. 문헌에서는 북풍을 ‘시맛바람’이라 하고 있으나 조사에서는 ‘땃바람, 뒀바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면 ‘뒀바람’이 북풍의 땃사람이 쓰는 은어라 되어 있으므로 이 말이 함께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남해군 삼동면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남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람에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풍을 ‘뒀바람, 갈바람, 뒀셋바람’으로 사용하고, 동풍은 ‘셋바람, 뉘새바람’이라 한다. 남풍은 ‘마바람, 맞바람, 들바람, 셋바람’으로 사용하며, 서풍은 ‘갈바람, 골마바람’이라 한다.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어촌민속지』, 필기획, 2002, 189쪽 참조.

【표 7】 바람에 대한 어휘

항목	사용 어휘
동풍	동풍, 셋바람
서풍	서풍, 갈바람
남풍	남풍, 맞바람, 마파람
북풍	북풍, 땃바람, 뒤편바람

### 3.4. 비

비에 대한 조사 항목은 7개 항목으로 비의 굵기, 양 등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었지만 실제 조사에서 지역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8)

가) 그런거 요는 {베락비가} 오면 저 후치기 저런 거.

나) {이슬비가} 있고, 소낙비가 있고.

다) {보슬비라꼬} 하지.

라) 그건 {장마비라} 하지요.

마) 여우비란 말은 우리 이쪽에선 안 들어봤어요. 그냥 {호랑이 장가간다} 카지.

바) 여기는 {호랑이가 장개 가는 비} 그런 얘기 있지.

사) 장마가 지면 언제라도 여름에 장마가 지면 비가 {오게} 돼있어.

아) 그걸 우리는 여기서 며 쫘 {비가 멈췄다든지} {비가 끝났네}.

남해군 삼동면에서 사용하는 비에 대한 어휘는 아래와 같다. ‘소나기’라는 말보다는 ‘소낙비, 베락비’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늘게 내리는 비를 ‘이슬비’와 ‘보슬비’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별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인 ‘여우비’는 여우비라는 용어는 사

용하지 않고 ‘호랑이 장가간다, 호랑이 장개가는 비’라는 말로 쓰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가 내리다’라는 표현보다는 ‘비가 오다’를, ‘비가 개다’라는 표현보다는 ‘비가 그치다, 멈추다, 끝나다’라고 표현하였다.

이상의 남해군 삼동면에서 사용하는 비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비에 대한 어휘

항목	사용 어휘
소나기	소낙비, 벼락비
이슬비	이슬비, 보슬비 (구분 없이 사용)
여우비	호랑이 장가간다, 호랑이 장개가는 비
비가 내리다	비가 오다
비가 개다	비가 그치다, 비가 멈추다, 비가 끝나다

### 3.5. 날씨 기타

기타 날씨에 관한 조사는 날씨에 관한 명사, 형용사 14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9)

가) 저 머고 그 머 운해라 해가지고 {안개}, 여기지금 이 철쭉 때문에 그 운해가 안개,{안개를 갖다가 {운해라} 그러지요.

나) 겨울에 아침에 추으면 왜 {서리 내린다} 그래 {서리꺾다도}하고

다) 반대말은 {따스다} 따뜻하다. {따스다} 머 보통 그래 쓰지.

남해군 삼동면에서는 지표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부영계 떠 있는 현상인 ‘안개’를 부르는 말로는 ‘안개’라는 어휘와 함께 ‘운해’를 사용



하기도 했는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사전에는 ‘구름 낀 바다’라 의미 풀이를 하고 있지만 제보자는 ‘안개’를 ‘운해’라 말한다고 한다. 이는 안개가 끼면 생활공간인 바다에 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보여 안개와 운해를 같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서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와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끼다, 내리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맑다↔흐리다’, ‘맑다↔어둡다’, ‘춥다↔따뜻하다, 따스다’라는 어휘가 대립체계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춥다’의 반대말로 ‘따스다’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따뜻하다’의 경상 방언형이다.

### 3.6. 방위

방위에 관한 어휘조사는 방위를 세분화 하여 총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10)

가) 동향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벨로 안 써요.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동쪽} 방향을 가면은 어데 거기 갔다 그런 얘기를.

‘동향, 서향, 남향, 북향’과 같이 방위별로 조사 항목을 설정하였지만 실제 조사에서 ‘향(向)’이라는 말과 결합된 어휘보다는 ‘쪽’이라는 말이 결합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는 어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해당 방향에 있는 지형, 지물을 들어 방향을 표현하였다.

### 3.7. 바다

바다에 관한 어휘 조사는 거리에 따른 바다 명칭, 관련된 동사, 형용사 등 19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1)

가) {원양이라든지}.

나) 우리 부르는 말로서 인제 {근해} 연해 해삐는 거 그기지요..

다) {바닷물이라} 그러지요 {해수} 한자이긴 하지만.

라) 갯물 짚물 {갯물이라} 카지 여는.

마) {민물} 쓰지요 {민물이} 바다로 들어갈 때 {기수어라} 그러지요 기수어라 그러는데 거기 사는 생물을 갖다 {기수족이라} 그래.

바) 인자 그 {육수가} 개입되고 한번 밀고 내려왔부리면 남강땀하고 나서는 좀 우리 철마다 한번 대 홍수식으로 밀어내르켜든요.

사) 그런데 바닷물도 들어갔다 나갔다 민물 그런데 난도 주고 근대 고기가 {갯물고기} 스스로 아 민물고기가 바다 내려오고 그 죽다 안 허고 바닷고기가 돼 빠요.

아) 수심이 깊으니깐 서해바다는 물이 싸닌간 {파도가 디게 양갈지}. 아주 양갈지고 고마 말하자면 바람장당구메로 동해 바다가면 파도가 이렇게 커 그래 커도 참 순해.

자) 좀 {너르게} 들어가갔고 안이 좀 좁아지는 거 그런 형태로 되가 있고.

차) {넓다} 좁다.

카) 인자 지형에 따라서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고.

타) 우리 사투리 쓰는 말 {기푸다} {아푸다}

파) {노프다} 쓰는 말이 사투리지 말하자면 높다 그건 노프다 낮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는 가까운 바다인 ‘연안’을 ‘근해, 연해’라 표현하였고, 먼 바다를 ‘원양’이라 하였다.

‘바닷물’을 표현하는 말은 많았는데 ‘바닷물, 해수, 갯물, 짚물’이라 하였

는데 이 중 ‘갱물’이라는 말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 ‘갱물’은 ‘바닷물’의 경남 방언형이다<sup>6)</sup>. ‘민물’은 ‘민물, 육수, 청수’라는 말을 썼는데 ‘육수’는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붙은 이름이고 소금기가 섞이지 않아 청수(淸水)라 하기도 한다. 민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의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진 물을 ‘기수어’라 하는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수어’에 대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어귀에 사는 물고기’라 정의를 포함해 ‘합쳐진 곳의 물’로도 사용되므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 사는 물고기를 ‘기수족’이라고도 한다.

이 지역에서는 ‘파도가 급하고 세게 치는 모양’을 ‘파도가 양갈지다’라고, ‘파도가 잔잔한 모양’을 ‘파도가 순하다’라고 사람에 빗대 표현하였다. 또한 ‘넓다, 너르다↔좁다’, ‘깊다, 기푸다↔얕다, 야푸다’, ‘높다, 노푸다↔낮다’라는 형용사가 대립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남해군 삼동면에서 사용하는 바다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바다에 대한 어휘

항목	사용 어휘
연안	근해, 연해
먼바다	원양
바닷물	바닷물, 해수, 갱물, 짠물
민물	민물, 육수, 청수
파도 모양 표현	파도가 양갈지다, 파도가 순하다
넓다↔좁다, 깊다↔얕다, 높다↔낮다	넓다, 너르다↔좁다 깊다, 기푸다↔얕다, 야푸다 높다, 노푸다↔낮다

6) 방언검색 프로그램 활용.

### 3.8. 지형

지형에 관한 생활어휘 조사에서는 조사 항목과 어휘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말이 있었다. 그리고 지형에 관한 조사에서 수집한 어휘 중에는 지명과 연관된 말도 많았는데 이는 지명을 붙일 때 주변의 지형을 고려해 붙인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에 관한 지명어도 정리를 하였다.

(12)

가) 인제 {선창이라기도} 하고 인자 우리는 이런 데는 항구란 말은 잘 안 쓰고 그럴만한 큰 곳이 몬 되지. 좀 크다는 느낌이고. {언이라는} 거는 저저 머냐면은 바다가 조금 {개} 모양으로 개라는 건 바다가 안으로 들어온 기 거 든예. 예. 그걸 부분을 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간척을 해가지고 그 인자 이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언이라 그러제 간척을 해갖고 그리고 인자 바깥은 {언둑이라} 케가지고 둑으로 해갖고 길이라든지.

나) 개를 갖다가 인자 {구멍개라는} 거는 들어가는 입구가 작게 돼 갖고 뒤에 인자 배가 들어가구로 되가 있는 이런 거는 인자 개 이름이 그냥 구멍개 라요.

다) {홀렁개는} 좀 너르게 들어 가갖고 안이 좀 좁아지는 거 그런 형태로 되가 있고. 개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서 좁아지는 형태.

라) {꿏}. 튀어나온 곳요. 장성곶 해췌는 거. 그거는 인제 육지가 바다 쪽으로 돌출되가 있는 거.

마) {비렁도} 옛날 어른들은 비렁이란 말을 썼지요. 지금은 머 인자 바위라는 말을 그냥 통념으로 쓰고 있고.

바) 빨이 지금 그 안에서 그 전어나 머 이런 걸 예를 들어서 거진 갯벌로 먹듯이 빨 속에 있는 부분이 그기에 인자 영양이 풍부한 것이 {부나라고}.

사) 간척을 해갖고 그리고 인자 바깥은 {언둑이라} 케가지고 둑으로 해갖고 길이라든지.

아) 그러니까 육지에서 나오는 자그만한 돌출 부위지예. 돌출부위인데 물

이 빠져야 돌출이 되는 부분 그니까 (강치나) 집등꺼치나 해쌌는게 다 그런 겁니다.

자) 거기 이 {암초가} 그 몽께서 바로 벗 길로 못 넘기그튼예, (영이라 카기도하고예).

경남 남해군 삼동면 주변에는 큰 포구나 항구가 없으므로 제보자들은 ‘포구’, ‘항구’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선창’이라는 말을 썼고, 다만 ‘삼천포항’이라는 말에서 항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대신에 ‘개’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의미는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라는 의미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그런 의미보다 ‘포구’와 ‘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포구’는 선박을 정박하는 곳이고, ‘만’은 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들어 와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지역 제보자들은 ‘만’이라는 말보다는 ‘개’라고 하였다. 이는 위의 구술발화 예문에도 나타나 있다. 또한 이렇게 바다가 육지로 들어온 곳에 포구를 만들므로 ‘포구’라는 말 대신에 ‘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개’에 대한 확장어휘로 ‘구멍개’와 ‘홀렁개’가 있는데, ‘구멍개’는 들어가는 입구가 작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넓은 개를 말하는데 모양이 구멍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 반대로 ‘홀렁개’는 들어가는 입구는 넓고 안쪽 공간이 좁은 개를 말한다. 이런 바다 지형이 안으로 들어온 형태인 만을 간척사업으로 메운 곳을 ‘언’이라 하고 언에다 독을 만든 것을 ‘언독’이라 한다. 이에 비해 육지가 돌출된 형태는 ‘곶’이라 하였다. ‘강치’는 강의 끝이라는 말로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다.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나 산호를 ‘암초’라 하는데 지역에서는 암초에 관한 하위 항목의 어휘로 ‘영’과 ‘여’가 있었다. ‘영’은 연중 몇 번씩 바다 위로 노출되는 암초를 뜻하며, ‘여’는 연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얇은 암초를 말한다. ‘여’보다 ‘영’의 이름이 많은 것은 여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

으며 모습을 보이는 영보다 이름 붙이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렁’이라는 말도 조사되었는데 이는 ‘바위’의 경남 방언형이다.

제보자들은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에 있는 지족해협은 ‘손도’라고 불렀다. 손도는 지족 1리 농계섬에서 전도 백빙까지를 말한다. 손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을 ‘턱굽터’라 하는데 이곳 바닷속은 암초가 많아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는데 그 중 송어가 많아 ‘송어턱굽터’라 하기도 한다.

‘부니’라는 어휘도 조사되었는데 ‘부니’는 갯벌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분이라는 뜻으로 남해안의 갯벌에는 부니가 많아 많은 어종이 서식한다고 한다. ‘훈지’는 조수의 흐름으로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로 물길의 영향으로 어족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상의 남해군 삼동면에서 사용하는 지형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지형에 대한 어휘

항목	사용 어휘	
포구, 항구	선창, 개	
만 (바다가 육지로 들어온 곳)	개	구멍개 (입구가 좁음)
		홀렁개 (입구가 넓음)
		언(개를 매움), 언둑
곶	곶	
암초	영(연중 몇 번 모습을 드러내는 암초), 여(연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암초)	
기타	부니, 훈지, 손도, 턱굽터	

#### IV. 결론

이상으로 남해군 삼동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어휘를 살펴보았다.

Ⅲ.1.에서는 전체 조사 항목과 조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전체 7개 범주에 관해 총 596개 어휘를 수집하였다. 그 중 본고에서는 ‘행위자’, ‘환경’에 관한 범주를 중심으로 Ⅲ.2.과 Ⅲ.3.에서 살펴보았다.

남해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로 행위자에 대해 ‘어부, 어민, 해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죽방렴 종사자에 대해 ‘발쟁이, 발일꾼, 샅꾼, 선수’라 하였다. 물때에 대한 어휘는 ‘한물, 두물’처럼 ‘양수사+물’의 형태로 ‘열다섯물’까지 사용하고 있고, 열다섯물을 ‘조금, 조금물, 스무셋날’이라 하기도 하였다. 미세기에 대한 어휘는 ‘밀물’은 ‘밀물, 들물’이라 하고, ‘썰물’은 ‘썰물, 날물’이라 한다. 또한 ‘물밀다’는 ‘물들다’로, ‘물써다’는 ‘물나다, 물빠지다, 물죽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람은 ‘동풍’은 ‘동풍, 셋바람’, ‘서풍’은 ‘서풍, 갈바람’, ‘남풍’은 ‘남풍, 맞바람, 마과람’, ‘북풍’은 ‘북풍, 댓바람, 된바람’이라 한다. 비에 대한 어휘에는 ‘소낙비, 벼락비’, ‘이슬비’, ‘보슬비’, ‘호랑이 장가간다, 호랑이 장개가는 비’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비가 내리다’라는 표현보다는 ‘비가 오다’를, ‘비가 개다’라는 표현보다는 ‘비가 그치다, 멈추다, 끝나다’라고 한다. 방위에 관한 어휘에서는 ‘동향, 남향’처럼 ‘향(向)’을 붙이는 어휘보다는 ‘동쪽, 남쪽’처럼 ‘쪽’을 붙인 어휘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바닷물’을 ‘바닷물, 해수, 갯물, 짠물’이라 하였는데 이 중 ‘갯물’이라는 말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 ‘갯물’은 ‘바닷물’의 경남 방언형이다. ‘민물’은 ‘민물, 육수, 청수’라는 말을 쓴다. 지형에 관한 어휘에서는 ‘포구, 만’의 의미로 ‘개’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개’에 대한 확장어휘로 ‘구멍개’와 ‘홀렁개’가 있다. ‘암초’의 하위 항목 어휘로는 ‘영’과 ‘여’가 있다.

이러한 경남 남해안 어촌지역 생활어휘에 관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어촌생활에 관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생활어휘를 수집하여 분류할 수 있었다.

2) 어촌생활에 관해 어휘 분류체계를 나누고, 다양한 어휘를 수집하여 어촌생활에 관한 어휘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3) 제보자의 구술 발화를 통해 경남 어촌지역의 다양한 방언 어휘를 수집할 수 있었다.

경남 남해안에 위치한 다른 어촌지역에 대한 생활어휘 조사는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어촌민속지』, 필기획, 2002.
- 국립수산기술훈련소, 『정치망어업』, 1984.
- 나승만 외 7인, 『다도해 사람들』, 경인문화사, 2003.
- 박계홍, 『한국민속학개론』, 형설출판사, 1983.
- 이강욱, 『한국의 도서문화; 서남해 도서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11집, 1993.
- 이병기·박승원·김진진, 『연근해어업개론』, 태화출판사, 1989.
- 이재익, 『죽방림의 어구어법에 대한 실태분석』, 부경대학교 학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어구학 실험실.
-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 최덕원,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1994.
- 데이비드 크리스털, 권루시안 역, 『언어의 죽음』, 이론과 실천, 2005.
- 앤드루 달비, 오영나 역, 『언어의 종말』, 작가정신, 2008.

**Abstract**

Study on the everyday living vocabulary in fishing villages at  
Namhae-gun County, Gyeongsangnam-do Province

- focusing on the vocabularies related to the 'performers' and 'environment' -

Hong, Gi-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systemize list of everyday living vocabularies being used in the fishing villages at Namhae-gun County, Gyeongsangnam-do Province. Among the everyday living vocabularies being used in Namhae-gun County, Gyeongsangnam-do Province, vocabularies related to the 'performers' and 'environment' were collected and summarized. For 'environment' related vocabularies, there were vocabularies regarding time, weather, space and place-names. The 'time' related vocabularies were 'mool-ddae' (tide time), 'misegi' (high tide and low tide) and 'haru' (one day). The 'weather' related vocabularies were regarding wind, rain, and others. The 'space' related vocabularies were on directions, sea, seashore and topography. Vocabularies for time, weather, space and place-names were further classified into sub-categories.

The vocabularies collection was done by directly meeting the survey subjects with questionnaire papers and drawings. In order to secure more diverse vocabularies, five information providers were chosen who had been borne in fishing villages and now making their livelihoods by fishing.

Among the 'performer' related vocabularies, the vocabulary 'jook-bang-ryeom'(fish-catching by fish net made by bamboo) was found which was the representative fishing method in this region. It was also possible to find various vocabular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this region among the environment related vocabularies.

Based on the collected information, the everyday living vocabularies at the

fishing villages in the southern coast at Gyeongsangnam-do Province were made into an organized vocabulary system in the categories of time, weather, space and place-names.

Key-words : everyday living vocabulary, everyday living vocabulary in fishing villages, fishing villages dialects, fishing villages in southern coast, performer, environment

홍기옥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02-701)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53-950-5106, 010-8161-5312

전자우편 : hongok@knu.ac.kr

이 논문은 2011년 5월 16일 투고되어  
2011년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6월 15일 게재 확정됨.